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12월 13일(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네덜란드 국민방문 답례 문화행사 참석

- 양국의 문화 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한 교두보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 -
- 다양한 ‘한국의 전통음악과 춤’ 공연으로 한국문화와 정신의 정수를 선보여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시간 12/13, 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AFAS Live에서 열린 ‘네덜란드 순방 답례 문화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답례 문화행사는 네덜란드와 1961년 수교 이후 첫 국민 방문에 따른 문화 행사로 한국의 전통음악을 통한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우호 증진에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신영희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채상묵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김영기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를 비롯해, 국립국악원 연주단원 등 최정상급 국악인들이 출연했으며, 관객석에는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내외와 네덜란드 측 주요 인사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문화행사에서는 국민 초청의 답례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공연도 진행했습니다. 신영희 명창은 조선시대에 네덜란드에서 귀화한 조선의 무관 벨테브레(한국명 박연)와 제주도에 표류해 서양에 한국을 처음 알린 하멜의 이야기를 판소리 단가 형태로 구성하여 한국과 네덜란드의 뿌리 깊은 인연을 전했습니다. 또 판소리 이수자 박애리, 남상일 씨가 네덜란드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에 대한 이야기를 입체창*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입체창 : 몇 사람의 창자가 배역을 정하여, 그 배역에 맞는 소리를 하는 양식

이밖에도 불교 사찰 승려의 춤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한국의 민속춤 <승무>(채상묵 명무)와 국악원 민속악단의 기악합주 <시나위>, 한국대표 풍류음악 시조 <청산리>(노래 김영기)와 민속무용 <장구춤>, 서도민요 <몽금포타령, 연평도난봉가>, 박애리, 남상일이 선보이는 입체창 <춘향과 몽룡의 사랑노래>가 이어져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성이 네덜란드에서 펼쳐졌습니다.

끝으로 신영희 명창과 박애리, 남상일 씨가 합창으로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흥을 돋우고 국악원 민속악단의 <판굿>으로 오늘 공연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한국 전통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 다양성을 유럽사회에 알린 답례 문화행사 공연에 큰 박수를 보냈으며, 공연 종료 후 네덜란드 국왕 부부와 환담을 가진 뒤 공연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끝>